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 김규철 | ④ 승인 2026.02.11 11:21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직원들이 여주제일을 찾아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여주제일시장에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 중심의 농지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에는 최종태 지사장을 비롯한 여주·이천지사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명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면 홍보를 펼쳤다.

이번에 집중 홍보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해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가입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이어온 고령 농업인으로,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논·밭·과수원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이양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매도형을 선택할 경우 보조금의 최대 70%까지 일시 지급도 가능하다.

최종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청년농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을 이끄는 핵심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김규철 kimkc6803@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